

행복한 책임기

하인리히 빌의 '카타리나 블룸의 ...' <민음사 판>

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언론 매체를 두고 누군가는 입법, 행정, 사법부에 버금간다 하여 제4 부라 칭하며 '거대한 권력'이라고 했다.

'거대한 권력'은 노숙자나 독거 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보를 왜곡하거나 가독권을 옹호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 정보를 얻고 판단의 잣대로 삼기 때문에 언론은 사람을 웃게도 울게도 만든다. 특히 자극적인 내용은 진실여부를 떠나서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까지 있다. 로마인들이 한 얼굴은 지난해를 돌아보고, 다른 얼굴은 다가올 새해를 본다고 하여 1월의 신으로 받든 야누스의 면모를 언론이 지닌 셈이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는 언론의 그늘에 희생된 카타

그녀의 어머니까지 죽게 만든다.

요약하자면 카타리나는 1974년 2월 20일 수요일에 괴테를 만나 하룻밤 사랑을 했고 25일 일요일에는 자신의 기사를 쓴 언론인을 죽였다. 사건 발생 5일 만에 광범한 사람이 살인자가 됐다. 소설은 실제 일어난 사건처럼 구체적인 상황과 진술을 토대로, 언론의 역기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소름끼치도록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얼마전, 채선당 사건을 통해 우리사회도 언론보도 이면에 감춰진 진실이 얼마나 다르게 전달되는가를 경험했다. 인터넷 발달로 무분별한 댓글을 손쉽게 씌



언론의 그늘에 희생된 카타리나

리나에 대한 이야기이다. 불행한 어린 시절의 정신적 외상으로, 결혼 역시 과정을 맞았다. 가정도 우미로 생계를 잇지만 자신의 일에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일한 덕에 아파트와 차를 소유하게 된다. 어느 날 괴테이라는 청년을 댄스 파티에서 만나 첫눈에 반한다. 그가 은행 감도 및 살인 혐의를 받고 수배중인 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룻밤을 같이 보낸다. 다음날, 경찰은 카타리나를 공범으로 의심한다.

그녀는 괴테의 혐의를 알았더라도 그를 도왔을 거라고 솔직하게 인터뷰한다. 이때부터 언론은 범죄자를 탈출시킨 마력의 여자, 이중생활을 하는 여자로 그녀를 왜곡시킨다. 대중은 짧고 아름다운 이혼녀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언론도 이에 부응한다.

며칠 사이에 황색언론은 그녀의 명예뿐만 아니라

로써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마치 사실처럼 해석되기도 한다. 책임 지지 않아도 되는 익명성 속의 개인은 더욱 잔인해진다.

자극적인 내용은 후속 기사화되면서 계속 불풀려진다. 언론에 의명의 대중이 카타리나 블룸보다 더한 상황을 언제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게 가세한다.

이런 상황을 언론만 책임져야 할까, 라는 질문에는 다소 회의적이다. 언론에 호응하는 개인도 문제가 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범람할수록 언론이든 개인이든 대중의 흥미를 휩쓸리지 않고 관음증적 시선에서 자유로우며 사건 이면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감식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독권 세력의 무차별한 왜곡에도 불구하고 카타리나 블룸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칭찬하고 진실을 지키려 한 그녀의 고충주이자 친구인 블로르나 부부가 귀감이 된다.

차노희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당선

'문화바우처' 소외계층 문화갈증 푼다

올해 예산 광주 20억·전남 32억 대폭 늘어
광주문화재단, '문화카드' 이용률 전국 최고
맞춤형 문화 서비스... 공연장 체험투어 계획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 복지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지방 자치단체가 진행하는 문화바우처 사업의 대폭 늘어나면서 이루어진 결과다. 문화바우처 예산은 2011년 347억원(수혜대상 122만명)에서 올해 487억원(수혜대상 160만명)으로 대폭 늘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문화소의계층을 위한 공연·전시·영화 등의 관람료 및 음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연 5만원 한도의 '문화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거나 지역 주관처가 진행하는 '기획바우처' 형태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역 주관처에게 권한을 대거 넘기면서 주관처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문화재단이 운영을 맡고 있는 광주 지역의 경우 지난해 예산은 12억 9400만원(시비 3억원 포함)이었지만 올해는 20억 3900만원(시비 5억 6000만원 포함)으로 늘었으며 전남은 24억원에서 32억 8000만원(8억

6400만원 포함)으로 늘었다.

현재 2012년도(2012년 4월~2012년 2월) 광주지역의 문화카드 발급건수는 모두 2만 249건으로 전체 발급대상자의 68.5%며 발급 대비 이용률은 51.3%로 두 분야 모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대상자들이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문화카드'와 달리 주관처가 직접 운영하는 기획바우처 사업은 주관처의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문이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모서오는 서비스다. 하반기에는 '뽀로로와 도깨비 소동', '뽀로로의 신기한 놀이터', '여수 엑스포' '살아있는 뮤지엄', '스위트뮤지엄' 등 전시 행사와 연극 '육탑방 고양이', '그날자그 여자', '김수로의 코미디 프로젝트' 등 다양한 작품을 선정했다.

또 박정현·임재범·이미자·리쌍·사이·부활 등 인기가수들의 콘서트도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다.

또 음향·조명시설·무대시설 등 공연장 시설을 체험하고 배우들의 리허설 체험, 무대주인공 체험, 예술인과의 만남 등으로 구성된 '공연장 백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추진된 발레 '백조의 호수'.

스테이지 투어'도 계획중이다.

'스페셜 데이'는 대상자들을 위한 맞춤형 문화 서비스다. 4월에는 배리어 프리 영화제를 개최했으며 어린이와 노인 대상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문화예술직업 체험 등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밖에 문화카드 소지자 30명 이상, 중장 장애인과 노인·아동 등을 대상으로 버스과 간식을 제공하고 장애인 수화통역 등을 지원하는 '문화카드 플러스 서비스'도 눈길을 끌며 자원봉사자들이 '문화일촌지기'도 운영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카드 발급 이렇게

문화카드는 1인당 5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공연, 전시, 영화 관람과 음반, 서적 구입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당 문화카드 1매를 발급하며, 이 중 만 10세에서 19세 청소년은 개인당 카드 1매를 발급한다.

또 무료티켓(공연장·공연단체

가 공연당 객석 5% 이내에 기부한 티켓)과 할인 티켓(미관매 예약을 제공받아 50~80%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티켓)으로 구성된 '나눔티켓' 구입 자격도 제공한다.

읍·면·동 일선 주민센터에서 자격 확인 후 카드를 실시간 발급해 주며 온라인(www.문화바우처.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62-670-744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여인'

선을 타고 흐르는 여성의 아름다움

정춘표 '여름향연' 전 9월4일까지 전남여성플라자

곡선이 가득하다. 여인의 머릿결부터 시작된 곡선미는 코와 얼굴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뒷가슴과 허리 라인을 따라 휘어지고 돌아간다.

조각가 정춘표씨가 9월 4일까지 전남여성플라자 여성문화박물관에서 여는 '여름향연'전은 부드러운 선이 물결치는 전시다. 여성의 아름다움이 선을 타고 흐르는가 하면, 꿈과 희망을 찾아 자유롭게 노니는 새와 북어도 만나볼 수 있다.

1992년 이후 올해로 12번째 개인전으로, 전시에서는 라인을 타고 유려하게 흐르는 아름다움과 신선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18점의 조각·설치 작품들로 채워진다. 대리석과 브론즈

작품인데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은 여성의 곡선미에 그리움, 기다림 등을 담았다는 작가의 노력이 담겨 있어서다. 조각품을 올려놓는 좌대에 꽃문양을 새겨넣어 여인상에 진한 향기를 불어넣는 도구로 활용하는 세심함도 돋보인다.

북어(코다리)와 새를 결합한 알투미늄 작품에서는 작품별로 그림자의 흐름을 따라 감상하는 것도 색다르다.

정씨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원을 졸업한 뒤 한국미술협회, 한국구상조각가협회, 한국여류조각가협회, 남도조각가협회 등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1-260-7300.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엔시안요텔클럽, 아름다운 연주여행

7일 여수 삼해원 아이들에 음악선사

'알프스 음악으로 전하는 이웃 사랑.'

알프스 음악을 노래하고 연주하는 광주엔시안요텔클럽(회장 김숙남)이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순회하는 아름다운 연주여행을 시작했다.

광주엔시안 요텔 클럽은 지난 6월 9일 광산구 인광전문요양원에서 첫 공연을 연 데 이어 오는 7일 오전 11시 여수 삼해원 아이들에게 음악을

선사하게 된다.

이번 공연은 '알프스로 떠나요, 신나는 요들여행'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며 솔로와 듀엣, 중창 등 다양한 구성으로 자연을 노래하는 알프스 민속음악을 전해준다. 또 '카우벨' '오르젤리' '우드스푼' '레제' 등 알프스 민속악기 연주도 만날 수 있다. (www.jodel.kr) 문의 010-3611-47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CBS 50주년 기념
1961-2012

- Rain
- Once there was a love
- Que Sera
- The Gypsy
- Sunny
- Susie Q
- Yesterday
- California Dreaming
- La Bamba
- El condo pasa
- Guantanamera
- & more



팝의 전설을 만나다! 그라미 어워드 8회 수상에 빛나는
호세 펠리치아노가 전하는 감미롭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호세 펠리치아노 내한공연

Rain, Once there was a love, Sunny, La Bamba 등
팝의 거장이 들려주는 주옥같은 올드 팝의 향연

JOSE FELICIANO
Live in Gwangju

일시: 2012. 9.11(화) 오후 7시 30분

장소: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주최: 광주 CBS JOY 커뮤니케이션

티켓: 인터파크, 티켓링크, 광주CBS(062-376-4488)
VIP석 120,000원 R석 100,000원 S석 80,000원